

# 당진시, 14년부터 추진 관내 담수호 수질개선 사업 성과

### 780억으로 수질 개선 사업 시작해...작년 4등급 기록

### 삼교·석문·대호호 등...“주민참여로 성공 이끌 것”

충남 당진시가 관내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수질개선사업들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는 삼교호, 석문호, 대호호 등 3개의 대형 담수호가 있다.

이들 삼교호, 석문호, 대호호 등 3개의 대형 담수호에 대한 수질개선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 삼교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등급 수질 목표

당진의 대표 담수호인 삼교호의 수질은 1990년대 들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 급기야 2007년에는 수질 등급 6등급을 기록하게 되었고,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진시는 2014년부터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삼교호 수질등급 4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제4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남원천, 석우천) 개선사업

에 공모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8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삼교호 수질개선의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하수관거, 공간폐수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5개 분야의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증설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완료했으며,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21년에,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수질개선 사업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적극 건의해 2016년 5월 환경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협약을 맺었다. 이후 2016년 삼교호 수계 목표수질이 설정됐고, 2017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과 2018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2019년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 1년 동안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해로, 당진시의 남원천 목표

수질인 3.4mg/L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한 해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삼교호의 수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해 2019년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기준 삼교호 말단인 삼교호1지점의 수질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 ◇ 당진을 가로지르는 석문호 유역의 수질개선

석문호는 당진을 가로지르는 역천과 당진천이 흘러들어가는 담수호로 당진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천을 지류로 가지고 있다. 당진천은 2017년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완료해 지금의 당진천 모습을 완성했으며, 역천은 2013년부터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석문호는 2019년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시곡천, 백석천)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4개 분야 5개 사업에 680억 원을 확보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 백석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관거정비사업 등으로 현재 각 사업별로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추진 중이다.

석문호는 2015년 농어촌공사에서 축정을 시작한 이래 6등급에서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완료돼 5등급을 거쳐 2019년 TOC 5.6mg/L로 4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예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호호는 정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내년에 조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완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산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호호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수질개선 사업, 주민 참여로 성공 이끌 것”

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질개선사업의 추진 뿐 아니라 ‘담수호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해 민간기관·단체와 수질개선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회를 통해 수질개선 방향을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개최한 담수호수



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김명용 석문호 어업계장은 “석문호 수질개선으로 빙어가 돌아와 2019년 어업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당진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담수호수질개선 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20일,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농업회의소, 축산단체협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농촌비점오염원 관리 협약을 맺고 담수호 수질개선에 협력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담수호 수질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추진한 수질개선사업들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주민들이 수질개선에 참여한다면 담수호 수질개선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나 기자**

## 서울대공원 해양관에서 9kg짜리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태어나



서울대공원은 지난 21일 새벽 2시에 동물원 해양관에서 9kg의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이 태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

혔다. 점박이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1호로 불규칙한 반점무늬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게 특징이다. 아빠(제부도, 20세 추정)와 엄마(은이, 7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은 현재 수영을 즐기며 해양관에서 지내고 있다.

사육사들은 고지방 생선인 핑치를 급여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며 은이를 지켜보다 올 1월 인신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아

기물범의 머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은이는 올해가 두번째 출산이다.

새끼의 하안 배넛털이 모두 빠지고 나면 내실로 분리시켜 먹이 불임연습(어미젖에서 생선으로 넘어가는 이유식 단계)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어미들도 모두 수유로 인해 체중이 많이 감소되고 더 이상 어미젖만으로는 새끼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 내실에서 미꾸라지부터 성체들이 먹는 생선까지

단계적으로 먹이불임 연습을 하게 된다.

물범 탄생은 1개월전 서울대공원 정식 사육사로 임용된 이광호 사육사는 “한참을 관찰한 후 수영을 곧잘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송천원 서울대공원장은 “코로나 19속 조용한 사회분위기 속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태어나 건 강히 지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고창, 이장 임명 관련 조례·시행규칙 마련

전북 고창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고창군은 이장 교체 사유의 명확한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고창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개정된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고창군 이장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이장의 교체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됐다.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 기소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입시, 각종 보조금 유용시, 총회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 확신시, 이장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등이다. 이때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이장의 후보자 추천 제한기간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시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새마을개발위원회의 명칭도 마을가꾸기 위원회로 변경됐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이장 선출에 따른 잡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읍면 이장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했다.



**블루베리 수확해오** 지난 21일 남덕유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마을 블루베리 농장에서 서용덕씨 부부가 잘 익은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 향도화 식품인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 노화방지와 시력보호, 면역력 증진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월 30만~300만원

모든 작목에 적용

제주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

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 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이차 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선, 고산, 한경, 중문) 67농가에 농가당 월 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 바 있다. 제주도는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을 감귤과 브로콜리에서 모든 작목으로 확대했다.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 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정읍시, 조각공원 주변 지중화 사업

전북 정읍시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내장호 주변 조각공원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읍시는 이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장호와 조각공원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약 250m 구간의 전신주와 전선이 지취를 감추게 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봇대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통신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과 국가생태관광지 월영습지, 솔티숲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탁월한 내장호의 모습을 제

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옥에 티를 걷어내고 나면 안전은 물론이고 더욱 아름다운 내장호 주변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공공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의 내장호는 가장자리에 드넓게 퍼진 버드나무군락의 새싹들이 연두 물빛을 녹아내고, 해질녘에는 내장산 서태봉과 불출봉이 담긴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 사북민주항쟁희,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사북민주항쟁동지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사북항쟁40주년기념 토크콘서트를 통해 사북항쟁 제40주년 기념식 성명을 발표했다.

황인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40년 대장정의 기착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면서 “되살아나는 사북의 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이 구제되지 않고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을 보면 아직은 싸늘한 사북의 봄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북항쟁은 이제 역사적 복원의 무대를 향해 나아간다”면서 “사북항쟁특별법의 제정과 그 법의 뒷받침을 받는 사북항쟁기념사업회의 발족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우리 사북항쟁 동지들의 역사적 여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여주시, 한시생활지원금 접수 시작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 여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금’이 접수

시작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0일 하루 모두 860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대상자 4089가구의 21%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읍·면·동주민센터와 시청 관련부서에도 문의전화도 및

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센터에 수령자가 몰리지 않도록 △20일~24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7일~29일 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월 1일 이후 미수령자로 대상자별 접수기간을 나눴다.

또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수급자 400여명에게는 이달 중으로 시설장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